현대소설연구 (제66호)
The Journal of Korean Fiction Research
http://dx.doi.org/10.16894/JKFR.66.1.7

‘무선택적 적응’을 요구하는 구조에 대한 해체적 저항 －김승옥의 <차나 한잔>, <들놀이>, 이청준의 <굴레>, <보너스>를 중심으로－

송 은 정*

요 약

1960년대 중반 4·19 혁명이 완성되지 못하고, 지리멸렬한 실패를 경험하면서 5·16 이후 군사정권이 내세운 성장과 민족이라는 슬로건에 젊은이들은 온전히 적대적일 수만은 없었다. 악의 실체, 뚜렷한 억압의 근원을 알았던 때에 ‘자기 세계’를 찾아보려 애쓰던 개인들은 이제 급속한 산업화와 그에 따른 삶의 질 향상이라는 당위 앞에 선택의 자유를 유보하고, 규율화 될 위기에 놓여있다.

김승옥의 〈차나 한잔〉, 〈들놀이〉, 이청준의 〈굴레〉와 〈보너스〉는 개별적 자기 세계와 실존에 대한 고민을 보이던 개인이 ‘무선택적 적응’에 놓일 수밖에 없게 한 분기점에 해당하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선거를 통해 정당성을 획득한 군사정권은 국민들에게 경제 성장과 생활의 개선을 최고선이라고 ‘정밀하고 완벽한 방법으로’ 선택해 준다. 때문에 국민에겐 그에 그대로 따르기만 하면 그만인 ‘무선택적 적응’이 요구된다.

특히 이러한 당위 제시와 적응 요구는 문화적인 삶의 성취로 포장되고 있는데 이 같은 시대적 당위의 작동을 신문사와 잡지사 같은 회사라는 구조 속에서 포착해내고 있다. 이청준 소설에서 자세히 언급되듯 이 작품 속에 등장하는 잡지는 5·16 이전, 선택을 위한 가치 표명에 집중하던 편집 방향과는 달라진 모습이다.

* 순천대학교 강사

커다란 회색빛 괴물 같은 신문사와 잡지사를 중심으로 한 회사라는 배경은 하나의 원형 감옥과 같이 시간과 사칙의 규율로 사원들을 감시하는 구조이다. 이 조직에서는 '봉투', '시험지', 라는 확고한 문자의 명령과 감시가 존재한다. 물리적 억압이나 폭력이 아니라 '들놀이'를 가자고 환심을 사고, "차나 한잔"하자는 추파와 '보너스'를 미끼로 던지며 소시민들을 유혹하고, 결국 '굴레'에 스스로를 적응시키도록 하는 구도이다. 즉, 문화적인 방법으로 가장한 채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법으로 동일화시키려는 폭력적 구조의 대유이다.

이 속에서 개인들은 강압적인 명령의 존재를 인식하지만 초대장이나 소문의 형태를 띤 명령의 의도는 읽어내지 못하고, 알 수 없음의 상태에 놓이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선택하지 못하는 불안함에 휩싸인다. 이러한 인물들의 감성과 내면, 그리고 판단을 유보한 해석적 자세는 말을 해체하는 증상 등으로 드러난다. 이 논문의 목적은 인물들의 이런 증상이 동일성의 폭력 앞에 훈육되지 않겠다는 해체적 저항을 담아내고 있음을 드러내는 데 있다.

주제어: 김승옥, 이청준, 1960년대, 무선택적 적응, 부유하는 주체, 해체적 저항

목차

1. 들어가며
2. '괴물'의 압력이 작동하는 배경
3. '문자'의 명령에 불안해하는 인물
4. '말'의 불확실함에 부유하게 하는 사건
5. 나오며

1. 들어가며

김승옥과 이청준은 4·19세대 문학[1]을 대표하는 작가이자 1960년대 ‘개인’의 형상화[2]에 주력한 작가라는 주요한 문학적 평가에서 뿐 아니라 전남 출신으로 1960년 서울대학교에 입학해 『산문시대』, 『68문학』 발간 등에 참여했다는 등 많은 접점을 가지고 있다. 양윤모는 1960년대 소설가 중 당대의 문제를 적확하게 다루고 있는 대표적 작가로 이청준, 김승옥을 나란히 꼽으며, 모더니즘 계열의 작가라는 공통점과 지식인의 정치적 소외, 자본주의 체제 진입의 실패로 인한 소외, 자기 세계를 통한 개인의 소외를 보여주는 작가로 꼽았다[3]. 또한 김건우[4]는 이들의 공통점을 ‘낙오자’의식을 가진 ‘새로운 지식인’이라고 공통적으로 명명한다. 작품 속 인물들의 ‘낙오자[5]’ 의식과 ‘불안감’은 작가 내면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여지며, 엘리트이자 지식인이지만 사회의 주류로 편입하지 못한 채 부르주아에 적대적인 자세를 가진 ‘새로운 지식인’이란 칭호를 얻는다. 이를 통해 두 작가는 문단 기득권에 반발하며, 자본 권력이 주도하는 사회 구조에 대항적인 문학을 꿈꾸었을 것임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나아가 두 작가는 편모슬하의 어려운 가정 형편과 전라도 시골에서 올라와 명

1) 4.19세대 문학은 김병익의 ‘65세대’와 『산문시대』와 『68문학』을 거쳐 『문학과 지성』 등을 통해 작품 활동을 한 특정한 문학그룹을 일컫는 개념을 가져왔다.
2) 권보드래, 「4월의 문학혁명, 근대화론과의 대결」, 『한국문학연구』 39집, 동국대학교 한국문 학연구소, 2010, 272면.
3) 양윤모, 「1960년대 근대화의 진행과 소외의 양상 -최인훈, 이청준, 김승옥 작품을 대상으로」, 『글로벌사회복지연구』 2권2호, 극동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12, 98면.
4) 김건우, 「4 · 19세대 작가들의 초기 소설에 나타나는 ‘낙오자’ 모티프의 의미」, 『한국근대문학연구』 15, 한국근대문학회, 2007.
5) 195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교육기회의 확대와 대학 팽창으로 1960년대는 대학생과 대학 졸업생 수가 늘어났으나 한국 경제 상황이 그 고급인력을 모두 흡수하지 못해 대학생 실업자가 늘어났다.

문고를 졸업한 동학들의 자신감 앞에서 느껴야했던 '지방 출신' 콤플렉스를 지닌 채 주류에서 낙오되어 '내성 (內省)'과 '자기탐구'의 작품들을 내어놓았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6].

특히 두 작가의 초기 작품에서는 이러한 시공간과 심리적 궤적이 접점을 이루는 경우가 많아서, 작품 속 인물들이 처한 상황이나 갈등 양상 및 그에 따른 내적 고민 또한 서로 겹쳐짐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공통점을 기반으로 60년대 중반에 두 작가가 신문, 잡지와 관련된 일을 시작하고, 생활 터전이라는 사회 구조로 편입되던 당시의 일을 바탕으로 서사를 이끌어간 작품 김승옥의 〈차나 한잔〉, 〈들놀이〉[7], 이청준의 〈굴레〉, 〈보너스〉[8]를 연구 대상으로 한다.

두 작가를 아우를 수 있는 시간적 접점에서 그들은 4·19세대라 불리우며, 4·19혁명을 통해 가능성과 희망을 경험함과 동시에 곧바로 5·16군사 쿠데타로 좌절을 맛봤던 이들이라 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작가의 내면과 작품을 분석함에 있어 선행되어야 할 연구과제이다. 권보드래는 4·16이 5·16군사 쿠데타에 의해 폭력적으로 압살되었다는 서사는 사실의 절반에 불과하다[9]고 말한다. 4월 항쟁 이후 1년여 간의 혼란과 지리멸렬하게 지속된 저성장으로 인한 혁명의

6) 김건우, 「4 · 19세대 작가들의 초기 소설에 나타나는 '낙오자' 모티프의 의미」, 『한국근대문학연구』 15, 한국근대문학회, 2007, 170면 -1960년, 동숭동 서울대 문리대 교양 과정부에는 김승옥과 김현, 박태순, 서정인 등이 재학중이었다. 이 가운데 박태순을 제외하면 모두가 전라도 출신이었다. 이 가운데 집안이 넉넉한 편에 속했던 김현을 제외하면, 지방출신이란 것은 곧 어려운 형편에서 힘들게 대학을 다녀야했음을 의미했다.

7) 김승옥 소설전집1, ≪무진기행≫, 문학동네, 1995. 이하 논문 속 작품의 인용은 모두 이 작품집을 기준으로 삼았음을 밝혀둠.

8) 이청준 소설전집1, ≪가면의 꿈≫, 열림원, 2002. 이하 논문 속 작품의 인용은 모두 이 작품집을 기준으로 삼았음을 밝혀둠.

9) 권보드래, 「4월의 문학혁명, 근대화론과의 대결」, 『한국문학연구』 39집,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10, 275면.

배반은 ‘빵’과 ‘성장’·‘번영’을 향한 조급증을 불러 일으켰다는 것이다. 나아가 ‘경제적 성장’과 ‘교양’에 대한 욕구가 개인주의적 자기계발[10]을 촉발시키는 대중매체의 메시지로 강화된다. ‘문화’의 흡수가 곧 삶의 질 향상으로 연결되고, 정치권력은 이를 명목으로 여러 가지 사회운동[11]을 주도하면서 성장을 위해 자유를 유보하도록 강요한다.[12] 이러한 통치이념은 TV, 라디오, 영화, 광고 등의 매체를 통해서 개인의 내면에 스며들어 물리적 폭력과 억압이 아니라 자기검열[13]이라는 새로운 형태로 통제와 감시를 작동한다. 미디어를 통한 스펙타클은 그 자체가 ‘문화’[14]가 되어 사회 전반에서, 정치를 대신하여 광범위한 영역에서 힘을 발휘한다. 특히 문화는 대중사회 및 소비사회와 연결됨에 따라 문화의 향유를 위한 경제적 기반을 갖춘 소비자의 자격을 요구하게 된다.[15] 개인은 물리적 폭력이 아닌 문화적 이상에 봉사해야 한다며 심리적 억압을 느끼며 스스로를 억제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작품들의 배경이 되는 신문, 잡지사는 문화를 형성하는 주류이나 그 문화라는 이름 이면에서 작동되는 규율화와 동일성의 폭력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10) 천정환, 「처세, 교양, 실존 - 1960년대의 ‘자기계발’과 문학문화」, 『민족문학사연구』 40호, 2009.

11) 신형기, 「분열된 만보객(漫步客): 김승옥의 1960년대 소설 읽기」, 『상허학보』, 상허학회, 2003, 202면. - 재건국민운동은 군부가 민족주의를 앞세워 반공을 국시(國是)로 삼고, 경제적 선진화를 내세워 근대화를 추진하며, 인간개조운동으로까지 정책을 밀고 나간다. 과거와 과거의 자기로부터의 탈각은 재건될 국민의 조건이었다.

12) 1960년대 중반은 군사정권 아래 정치적 반공과 문화적, 경제적 성장을 앞세운 통치이념으로 자유의 희생을 요구하는데, 군사정권은 자유주의가 반공과 성장이라는 국가사업에 방해물이 되고, 따라서 반민족적이라는 논리를 내세웠다.

13) 김건우, 「1964년의 담론지형 : 반공주의, 민족주의, 민주주의, 자유주의, 성장주의」, 『대중서사연구』, 제22호, 74~75면 참조.

14) 테리 이글턴, 『이론이후』,이재원 옮김, 도서출판길, 2010, 42면 참조.

15) 대중문화 자체는 어떤 공식에 의해서 만들어지며 대중 조작적이다. - 김정남, 「김승옥 소설의 근대성 담론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46면.

있다.

김정남[16]은 김승옥 소설은 자본주의적 소외와 일상의 모순을 비판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김명석[17]도 소시민인 주인공들이 안정적인 일상의 욕망과 그에 따른 내면적 불안이 드러나는 작품들로 이 두 작가의 작품을 언급한다. 더불어 당대인들이 집착할 수밖에 없는 '일상성'과 '자아의 욕망과 일상의 욕망과의 대립구조'로 읽을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두 작가의 1960년대 작품 속 인물들의 욕망은 일상의 욕망과 차이가 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데 더 문제적이지 않을까 싶다. 특히 본 논문에서 다룰 작품은 개인의 욕망이 기표화된 일상의 그것과 동일화 되어 가는 과정들을 보여주는 작품들로 보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안의 증상에 대해서는 김영찬[18]의 논문에서도 부각된다. 1960년대 두 작가의 소설 속 인물들이 느끼는 큰 타자의 응시로 인한 불안감은 당시의 당위들을 자아의 해체 위험으로 지각하는 주체의 심리적 반응이라고 보고 있다. 때문에 성장과 민족주의라는 지나친 개입과 보호가 일어나는 1960년대 작가들이 집착한 것은 일상성이 아닌 정체성일 수 있는 것이다. 이청준은 〈보너스〉의 폭을 넓혀 내놓은 장편소설 ≪씌어지지 않은 자서전≫에서 자신들을 4·19세대라 칭하고, "엄숙한 선택과 무선택적 적응이라는 앞뒤 세대의 특징을 모두 지닌 세대"[19]라고 정의했다. 이 명명은 본 논문에서 진행한 분석의 방향에 중요한 단초가 되었다. 김승옥과 이청준 작품 속 인물들이 초기 자아의 욕망과 그것의 선택에 대해 고심하고, 그로 인한 내적인 격정을 드러냈다면, 어느

16) 김정남, 「김승옥 소설의 근대성 담론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49면.
17) 김명석, 「김승옥 소설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18) 김영찬, 「불안한 주체와 근대 - 1960년대 소설의 미적 주체 구성에 대하여-」, 『상허학보』 12, 상허학회, 2004, 47면.
19) 이청준, ≪씌어지지 않은 자서전≫- 이청준문학전집 장편소설1, 열림원, 2001, 123~125면.

지점에서는 선택이 아닌 적응만을 요구하는 사회 구조를 인식하며, 그 안에서 혼란스러워 하는 주체로 옮겨간다고 본다. 본 논문은 김승옥의 〈차나 한잔〉, 〈들놀이〉, 이청준의 〈굴레〉, 〈보너스〉가 엄숙한 선택과 무선택적 적응의 갈림이 일어나는 분기점에 해당하는 작품이라고 보았다.

비슷한 처지의 대학생이던 두 작가가 사회인으로 편입한 단계에서 쓰여진 위 작품들은 회사라는 구조가 요구하는 새로운 주체로 생성되어야 하는 시점에 놓인 인물들의 내면을 그리고 있다. 주류가 아닌 이들이 신문사, 잡지사와 같은 곳에 입사하고, 그곳에서 일상을 영위해보고자 할 때 받아들여야 하는 규율은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소설 배경 분석을 통해 밝혀볼 것이다. 다음 장에서는 인물에 주목해 규율의 감시와 명령 앞에서 근대주체로 생성되고, 선택 없이 적응해야만 하는 인물의 감수성과 불안감, 그 안에 내재된 해체적 욕망의 단초를 찾아볼 것이다. 끝으로 불안을 조장하는 사건들 앞에서 주체는 어떤 해체적 저항을 모색했는지 살피며 분석 작품들의 문학적 의의를 정의해보고자 한다.

2. ‘괴물’의 압력이 작동하는 배경

김승옥의 〈차나 한잔〉과 이청준의 〈굴레〉의 주인공은 만화가와 대학생으로 새로운 일거리를 찾아야하거나, 직장을 얻기 위해 시험을 보고, 면접을 보아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그들이 찾은 곳은 신문사이다. 이청준의 〈보너스〉도 잡지사에서 살아남으려 고심하는 직원의 이야기를 다룬다. 신문과 잡지는 문자를 통해 당대의 대표적 기표를 생산해내는 매체이자 한 시대의 문화를 이끌어간다. 단편 〈보너스〉의 배경이 되는 잡지사에 대한 묘사는 이청준의 장편 ≪씌

어지지 않은 자서전≫에서 구체화된다. 〈보너스〉의 '나'는 이전 'Y' 잡지사에서 현재의 여성잡지사로 이직해 왔다고 하는데, ≪씌어지지 않은 자서전≫에서는 잡지사가 '내외'와 '새여성'으로 바뀐다. 이 두 잡지사[20]를 비교하는 부분은 분석 대상이 되는 네 작품의 배경이 갖는 적응을 요구하는 문화적 억압의 대유로서의 특성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청준은 토마토라는 화제를 가지고 '내외'와 '새여성'사가 풀어나가는 방식을 대조함으로써 명료화한다. 그 이전 '내외'사는 "우리에게 토마토가 모자란다는 아우성"이었던 대신에 '새여성'지는 "토마토를 어떻게 더 보기 좋게 멋있게 만들어 먹을 것인가를 생각하고 그 방법을 보급시켜 소비의욕을 북돋워주자는 쪽"이었다고 표현된다. 전자는 토마토를 거론의 목적으로 삼고 있다면 후자는 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새여성'사는 토마토가 유발할 수 있는 부정적인 생각이나 논의는 절대 용납되지 않는 것이다. 즉 이들 작품의 배경이 되는 여성잡지사와 신문의 문자는 그 사회의 대타자로 제시되어, 믿고 따르게 하는 표상을 제시하고 많은 이들의 욕망의 대상으로 자리하게 된다. 선택이 아니라 보여준 것을 그대로 따르고 그에 적응해 가도록 하는 것이다.[21]

---

20) 이청준 자신도 1966년 잡지 『사상계』의 편집부 기자를 거쳐 67년 『여원』으로 이직했다.

21) 50년대 이후 여러 잡지가 발간되면서 새로운 시대를 구축하고자 하는 열의를 담아내었다. 여러 수기와 독자 투고 등의 방식으로 생활 개선과 국가 재건의 의지를 보급한다. 이는 이후 대중적이며, 소비적인 문화 보급의 창구 역할로 바뀌기도 한다. 예를 들어 1953년에 발간되어 1970년까지 간행된 종합교양지 『사상계』는 2만여 명의 정기 구독자를 거느린 당대 지식인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끼쳤던 대표적인 지식인 잡지이다. 이 잡지는 4·19당시 대학생이 학생들의 행동을 두고 '지도부와 사상이 없는 것'으로 비판하고 있다. 신세대들은 '감각하는 세대'로 '판이한 인간형'이라는 호칭되며 '무모한 행동력'에 결부되고 그것은 '무사상성, 산만성, 맹목성, 유동성'이라는 약점으로 평가되어 신세대를 모순된 존재로 평가하게 된다. 그러면서 대학생은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는 당위를 설정하는데, 이 '본래의 자리'는 정치적이지 않은 일상의 자리이며 기성세대가 설정한 윤리 기준에 부합하는 자리에 해당한다.(유창민, 「1960년대 잡지에 나

직장 생활을 하는 사회인으로의 입사 과정이 신문사나 잡지사로 그려짐은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가? 이는 앞서 말한 것처럼 사회 구조를 효율화하기 위한 당대의 규율화 방법이 지극히 문화적인 방법으로 시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 제국주의자들의 억압에 고통 받던 식민지인, 이념갈등으로 생사를 넘나들었던 민중들, 전쟁에서 생존을 위해 몸부림쳐야 했던 국민, 미숙한 민주주의에서 독재 정치에 지쳤던 시민들에게 이제는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하다는 비교적 반론의 여지가 없는 모토가 주어진 시대이다. 때문에 이때 작동하는 권력은 신문과 잡지라는 문화의 표상을 기수로 내세우고 있다.

작품 속 인물들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문화적인 장소로 여겨지는 신문과 잡지사에서 일하기를 바라는 것은 인물들이 그 시대 주도적인 권력의 중심부에서 자신의 몫을 얻어내려는 욕망이자, 타자의 욕망 대상이 되고 싶어 하는 욕망이다. 이 욕망은 외부에서 제시된 타자의 욕망이며, 도달해야만 하는 목표가 되어 〈차나 한잔〉과 〈굴레〉의 서술자에게 신문사는 ‘큰 회색 괴물’로 다가온다. 그 거대한 괴물의 등에 올라타면 사회에서의 몫을 배분받을 수 있다고 믿어진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그 몫이란 자신의 것이 아닌 괴물의 권위와 이름에 빚지게 되는 것이다.

> 좀 걷다가 그는 신문사의 건물을 돌아보았다. 자기가 여기에 관계를 갖고 있던 그 동안 타인들로 하여금 자기를 볼 때에 몇 점 더 놓고 보게 해주던 그 회색 괴물을. 이 회색빛 괴물의 덕분으로 그는 생전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도 긴 설명이 필요 없이 자기를 신용해 버리게 할 수 있었다. (김승옥, <차나 한잔>, ≪무진기행≫, 237면)

타난 대학생 표상- 사상계 의 대학생 담론을 중심으로-」, 『겨레어문학』 제47집, 겨레어문학회, 2011, 참조.)

> M일보사의 거대한 빌딩이 갑자기 큰 괴물처럼 느껴졌다. 나는 그 앞에 너무나 작았다. 욕설을 퍼부어도 이 괴물의 귀에는 도무지 들리질 않고, 더구나 성깔 따위를 드러낼 것 같지는 않았다. (이청준, <굴레>, ≪가면의 꿈≫, 25면)

자기를 굳이 증명하고 설명하지 않아도 신용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곧 그 괴물과 같은 신문사와 자신이 동일화되었을 때의 일이다. 동일화는 나의 목소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괴물 앞에서 자기는 사라지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 때 동일시의 폭력이 필연적으로 작동하지만 결코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할 필요가 없다. 감시자이자, 권력자인 상관은 속이야 어쩔망정 큰소리를 내지 않고 미소 지으며 직원들을 맞이하거나, 무표정을 가장한다. 또 마음에 들지 않는 직원을 바로 퇴사시키지 않고 꼬박꼬박 월급을 주면서 일은 주지 않고, 다른 일은 할 수 없다는 사칙을 적용시킬 뿐이다.

> 이 잡지사도 출근부터 퇴근까지의 시간 관리는 어디 못지않게 엄격했다. …… 점심시간에도 꼭 1분이 지난 1시 31분에는 사장실 도어를 열고 편집실로 나와 나중에 들어오는 친구들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서 있었을 것이다. …… 그러니까 그 점심시간이 끝나고 사장이 취하는 거동새는, 사장실을 나가는 길에 사무실을 한번 둘러보다 때마침 문을 들어서는 직원과 마주친 듯 묵연해 보이는 그런 것이었다. …… 모두들 말없는 사장의 시선을 두려워했다. (이청준, <보너스>, ≪가면의 꿈≫, 35면)

엄밀한 시간 엄수는 물리적이고, 고정적인 시계의 시간에 맞춰 사람들의 행동과 삶의 흐름들을 분절시키고, 그에 맞춰 삶의 방식도 조절하게 하는 규율의 방식이 된다.[22] '사칙(社則)'이란 이름의 시

22) 송은정, 「김승옥 소설에 드러난 동일화에 맞선 해체적 저항」, 『현대문예비평』

스템 안에서 눈빛이나 등, 퇴장과 같은 존재의 드러냄만으로, 협력을 구하는 듯한 말만으로도 규율을 세워가는 것이다.

이청준 〈굴레〉는 창간 3개월을 맞는 M일보사에 약간 명의 신입사원을 뽑는 시험장에서 시작되는데, 이곳은 마치 ‘엑스트라가 많은 사극 영화의 한 장면’처럼 천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그 가운데서도 ‘나’는 여러 명의 지면(知面)과 마주치고, 여차하면 나가버리겠다고 머뭇거린다. 김건우는 김승옥, 이청준 등을 1960년대 등장한 ‘새로운 지식인’이라 명명했는데 이들은 스스로 낙오되었다는 감각을 가진 채 생활인(속물)으로 전락하지 않겠다는 자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때문에 ‘소시민’의 개념도 백낙청과는 다른 김주연의 정의처럼 ‘속물로부터 거리를 두고자 하는’. ‘추방된 자들의 복수심’을 가진 이들로 정의하고 있다.[23] 시험장에서 ‘나’와 만난 지면(知面)들은 서로 시선을 피하거나, 꼭 합격하려고 온 것은 아니라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이 같은 논의에 들어맞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그들이 서로의 시선을 피하는 것은 이미 그들은 김승옥의 〈생명연습〉, 〈역사〉의 인물이나 이청준의 〈퇴원〉, 〈별을 보여드립니다〉에서처럼 ‘자기 세계’[24]의 의지를 관철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란 것을 짐작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합격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를 취할 수 없는 것은 속물로 전락하는 수밖에 없는 길을 자청하고 나서기 또한 어려운 까닭이다. 그러나 합격의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한 이들은 그 전과 다르게 눈빛을 피하지 않으며, 회사가 지시한대로 똑같이 행동하려 한다.

사내가 넥타이에 주의를 할 때 수험생들은 넥타이로 손을

제51집,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16.

23) 김건우, 「4·19세대 작가들의 초기 소설에 나타나는 ‘낙오자’ 모티프의 의미」, 『한국근대문학연구』 15, 2007, 170~181면 참조.

24) 김승옥의 〈생명연습〉에서 언급된 생명으로서의 자기 세계이다.

가져갔다. 머리를 주의할 때에는 일제히 제 머리들을 매만졌다. 아무도 전번처럼 비실비실한 표정이 없었다. (<굴레>, ≪가면의 꿈≫, 24면)

'나'가 이전에 알던 지면(知面)들은 차이를 가진 개별자였지만 한 번의 시험을 통과한 인정된 이들은 이제 똑같이 행동하고, 말로 전달되는 것을 그대로 수행하게 된다. 면접장은 응시자들에게 하찮은 문제 하나가 운명을 가를 수 있을 것만 같은 두려움과 초조함을 느끼게 하며, 화장실에 가는 것마저 이탈로 보일까봐 참도록 하는 세계인 것이다. '나'가 시험장에서 그랬듯이 감시자의 눈빛 아래 노출된 개인이 숨을 수 있는 방법은 모두 똑같은 모습으로 덩어리진 군중 속에 묻혀 드러나지 않게 존재하는 것이다.

이 동일시의 폭력은 당대를 추진해가는 하나의 동력으로 작동한다. 산업사회가 본격화되면서 효율성을 위한 규격화가 이뤄지고, 이는 정치의 차원이 아니라, 경제와 문화의 차원[25]에서 이뤄지게 된다. 이로 인해 규격이 옳지 않음을, 동일성의 폭력이 부당함을 말하는 것은 정의의 문제가 될 수 없게 된다.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동일성의 폭력은 투쟁적으로 극복해가야 할 것이 아니라 문화적 차이나 생활 방식의 차이처럼 여겨진다. 때문에 그것은 이미 정해져 버린 것이니 그저 관용을 발휘하고 적응해 나가야 할 문제처럼 받아들여진다. 이런 구조 속에서 4·19세대 문인들은 싸워야 할 적을 잃어버린다. 극복하기 위해 투쟁하는 치열함 대신에 당위로 제시된 규율을 체화시켜가는 과정, '무선택적 적응'이 필요한 시기와 공간에 놓이게 된다.

동일화의 요구는 필연적으로 배제의 대상을 두게 마련으로, 반골 성향이 강한 'X지방' 사람들이나 편모 가정 출신은 취직 불가의 굴

25) 슬라보예 지젝, 『폭력이란 무엇인가 - 폭력에 대한 6가지 삐딱한 성찰』, 김희진·이현우 옮김, 난장이, 2011, 199면.

레에 붙들린다. 그런데 여기서 입사에서 배제되거나 소외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란 굴레보다 더 무서운 것은 그 사회체제에 입사한 후 동일화 된 규율에 편입하면서 자기 자신을 소외시킬 수밖에 없음[26]의 굴레이다. 강력한 힘을 가진 이 공간으로의 진입은 결국 ‘나’의 목소리를 잘 내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요구하는 답을 잘 알고 수행할 수 있는 존재로 변해가야 한다는 암묵적인 압력을 받아들임을 의미한다.

> 사내가 가리킨 곳에는 백지에 면접 요령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었다. 어느 문으로 들어가서 어디서 절을 하고, 수험번호를 대고, 이름을 대고. …… 질문에는 공손히 요점만 대답하며……(이청준, <굴레>, ≪가면의 꿈≫, 29면)

> 나는 대답했다. 하고 나서 금세 또 후회를 했다. 정직한 대답을 해준 자신이 못마땅했다. 그리고 목소리가 너무 공손했다. 입이 생각대로 움직여주지를 않았다. …… 이번에도 입이 혼자 떠들었다. 떠들고 나니 소름 같은 것이 등골을 서늘하게 타고 지나갔다. …… 그것은 거짓말이었다. 나는 정말로 자신에게 화가 났다. (이청준, <굴레>, ≪가면의 꿈≫, 26면)

인물들은 자신의 말을 제어할 수 없으며, 회사가 요구하는 답을 하기 시작하면서 자괴감을 느낀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괴물은 황금성이기도 하다. 이 황금성은 이윤을 내기 위한 모정의 결탁을 하고 있다. 〈보너스〉에 등장하는 잡지사는 유명인사 탐방 기사 란을 통해 유력자를 추켜세우고 촌지라는 사례금 형식이나 광고지면 매입 형식, 잡지 구입의 형태로 대가를 받아내는 곳이다. 〈차나 한잔〉의 만화가 ‘이선생’이 일감을 빼앗기게

26) 양윤모, 「1960년대 근대화의 진행과 소외의 양상」, 『글로벌사회복지연구』 제2권 제2호, 2012, 101면.

된 것도 “한 장의 만화를 여러 장으로 복사해서 세계 각 곳에 싼값으로 팔아먹는 미국 만화가들의 신디케이트에 국내 신문이 걸려들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유머에 대한 웃음마저도 전 세계인이 동일화되게 하는 힘은 바로 대중문화라는 소비문화에 힘입고 있다. 이념이나 신념이 아니라 “사회정의를 실현해가는 한 방편”으로 황금성을 짓는, 이윤의 원리를 가장한 억압이 존재한다. 이청준은 65년 잡지 『사상계』에 〈퇴원〉으로 등단한 이후 ‘사상계’와 ‘여원’이란 잡지사에서 근무한 바 있다. 그가 근무한 당시 ‘사상계’는 지면을 3백면에서 2백면으로, 67년에는 1백면으로 분량을 줄인다. 여러 이유가 있었겠지만 63년에는 정보기관 압력으로 전국 서점에서 무더기 반품사태를 빚었으며 1965년에는 세무사찰이 진행되고, 67년 실제로는 발행 중지에 들어갔다.[27] 정치적인 압력은 반품이라는 형태와 세무사찰이란 자본과 이윤의 문제로 전도되어 자기 반성적 사유로만 몰아가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인물들은 회사에서 ‘선택’을 할 수 있는 개별자의 목소리를 낼 수 없게 된다. 또한 대적할 적이 사라진 가운데 성장을 위해 동일화하고, 적응하라는 괴물의 요구와 억압을 느끼게 된다.

3. ‘문자’의 명령에 불안해하는 인물

김승옥의 〈들놀이〉와 이청준의 〈보너스〉에서는 의미는 다르지만 직원들이 ‘봉투’를 받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 ‘봉투’는 직원의 일원으로서 인정받는다는 의미가 되고, 일자리를 지켜내야 하는 회사원들에게 욕망의 대상이다. 동시에 그 봉투에 든 것이 ‘들놀이 초대장’이

27) 박태순 「민주·민족이념을 추구하다 쓰러진 『사상계』」, 『역사비평』39호, 1997, 291면.

라 해도 그것은 '명령'으로 받아들여진다. 말씀이 있었던 태초 이후 일자의 말이 가진 강압적인 힘은 이제 문자로 넘어왔다. 문자로 전달된 권력자의 말은 라깡의 말처럼 물질적인 것이 된다. 언어는 모든 인간의 의식적, 무의식적 사유 활동에 내재하는 객관적인 힘으로 작동하면서 그 누구도 이 언어, 문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다.[28] 상관의 '명령'을 대변하는 문자는 단순한 행동의 이행 뿐 아니라 내면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 "애, 난 내일 그이와 인천 가기로 했는데 어쩌면 좋으니?"
> 한 여자사원이 다른 여자사원에 속삭였다.
> "들놀이에 빠지면 되잖아?"
> "모가지는 내놓고?" (김승옥, <들놀이>, ≪무진기행≫, 293면)

명령은 우회적으로 이뤄지나 그것을 받아들이는 이들에게는 이렇게 직설적인 공포가 된다. 초대장이 마치 "6.25 때 쳐들어온 인민군"의 방송 차에서 들려오던 나긋한 목소리로 들릴 만큼. 당시 군사정권은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북한 공산당의 위협과 빈곤의 공포감을 조성하며 반공주의를 강화하고, 국가보안법을 제정하는 등 공포정치[29]를 적용했다. 이 같은 정치에서의 경직성은 일상생활에서도 의례를 새롭게 만들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문화를 창안한다며 강압적이고 조직적인 규율화를 작동시켰다. 이 조직의 강압적인 규율화에 대한 개인의 반발심은 '새로운 삶의 창안' 이라는 당위 앞에

28) 김상환, 홍준기 엮음, 『라깡의 재탄생』, 창작과비평사, 2002, 39면.
29) 슬라보예지젝, 『폭력이란 무엇인가?』, 이현우, 김희진, 정일권 옮김, 난장이, 15면. 슬라보예 지젝은 프랑스 혁명가 로베스피에르가 한 "공포는 미덕의 발현체이며, 특수한 원칙이라기보다는 민주주의의 일반 원칙이 조국의 절박한 필요에 응답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을 인용하며 민주주의 일반원칙을 적용한 것이 '공포정치'라고 말한다.

서 흔들리게 되며 서서히 선택이 불가능해진다. “사람이란 시새움이 많아야 잘사는 법야.” (〈차나 한잔〉, ≪무진기행≫, 219면)라는 말처럼 작품 속 인물들은 서서히 타자의 욕망을 자신의 것으로 대치시키려 한다. 그것이 가치관을 표명하고, 의지를 발휘해야 할 선택의 문제들이 아닌, 그저 어떻게 하면 토마토를 더 보기 좋게 요리하고, 어떻게 문화적인 생활양식을 위한 소비를 할 것인가와 같은 일상적인 것들이라 해도 독자들은 신문과 잡지가 보여주는 것들을 자신도 모르게 내재화하려 하고, 직원들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이 욕망은 〈차나 한잔〉의 주인공이 말하듯이 자신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체제 안에서 “어쩌다가”의 연속 하에 추구하는 환상이라고 할 수 있다.

> 그야말로 ‘어쩌다가’의 연속이었다. 그는 자기가 지난날 우연 속에 자신을 맡겨버린 것이 갑자기 역겨워졌다. ‘거지같은 자식이었다.’하고 그는 자신을 욕했다. 손톱만큼이라도 좋으니 나의 주장이 있었어야 할 게 아닌가. 그러나 다시 한 번 자기의 이력을 검토해보면 그 망할 놈의 군대 생활이 끼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어쩔 도리가 없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군대 속에서 어떻게 자기의 희망대로 생활 할 수 있단 말인가. 마치 그의 만화 속의 인물들이 자기들의 표정과 운명을 그의 펜 끝에 맡겨버릴 수밖에 없듯이. 우연 속에 자신을 맡겨버리는 습관을 가르쳐준 게 그놈의 군대였다. (「차나한잔」, ≪무진기행≫, 216면)

‘이선생’이 만화를 업처럼 시작한 것은 ‘군대’라는 권력집단 내에서였듯이 그의 욕망은 어쩔 수 없는 강한 힘이 작동되는 가운데 시작된 것이었다. 희망한 대로 살지 못하고, 타인의 욕망을 따라가며, 스스로는 소외시키는 주체는 진정한 주체라고 할 수 없다. 라깡은 주체는 타자의 욕망으로부터 분리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소외되고

있는 자신의 고유한 욕망을 발견하라[30]고 말한다. 그러나 60년대에 일상의 반복성과 파행적 도시화[31]의 가속도를 이기지 못한 인물들에게 자신의 욕망 발견은 불가능해 보인다.

더불어 타자의 응시와 명령이 권력자 한 사람만의 것은 아니라는 데 더 큰 심리적 불안이 찾아온다. 같은 처지라고 생각했던 동료들 역시 타자의 욕망을 내재화한란 존재가 되어 또 다른 큰 타자가 되어 개인을 옥죄게 된다. 〈보너스〉의 '나'는 사장 딸의 친구라는 직원 '미스 김'에게 나의 언행을 사장에게 일러바칠 사람일 것이라는 혐의를 씌우며 그녀 앞에서의 행동을 후회한다. 동료 직원들도 '나'가 회사를 그만두고 싶어 하거나 빠찡꼬를 드나든다는 것을 언제라도 사장에게 일러바칠 사람들로 여겨진다. 〈들놀이〉에서는 사장의 처제이자 비서인 미스 김의 눈에 난 일이 무엇이었을까를 걱정하는가 하면, 들놀이 초대장을 전달한 사환아이의 손, 그리고 명령과 같은 초대장을 넣은 봉투에서 마저 불안을 느낀다. 〈굴레〉의 시험장에는 '너는 이곳 아니면 갈 곳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비슷한 처지의 응시생들의 눈길이 있다. 감독관으로 들어온 '나'의 입학 동기인 'H' 역시 자신의 볼품없는 응시자 처지를 알아채버릴 감시자로 느낀다. 소설 속 서술자들은 같은 처지에 놓인 직원들을 피해자나 약자의 위치에 놓인 동료로 느끼기보다 감시자의 또 다른 눈으로 여기며, 경계하게 된다. 이로 인해 인물들은 더 불안하고, 외로워지며, 도처에서 중층적으로 작용하는 굴레[32]를 느끼게 된다.

〈보너스〉의 '나'는 그런 사무실 동료들이 더 견딜 수 없다고 말한다. "중력이 없는 인간들"이라고 표현되는 이들은 자기 자신의 선택

30) 홍준기, 「자끄 라깡, 프로이트로의 복귀 - 프로이트, 라캉 정신분석학 : 이론과 임상」, 『라깡의 재해석』, 창작과비평사, 2002, 75면.
31) 강운석, 「60년대 소설 연구(2) - 이청준론」, 『숭실어문』 15, 2012, 479면.
32) 우찬제, 「탈난 개인의 탈주」, ≪가면의 꿈≫, 이청준문학전집3, 열림원, 2002, 373면.

과 의지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이 규율화한 시스템에 맞춰 행동하고 있는 또 다른 자기이다. 감시자이자 자기 내부에서 검열하는 또 다른 눈의 자기이기도 하다. 동료들에게 중력을 느끼지 못하면서 부유하는 사람들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곧 자신에 대한 혐오이기도 하다. 그 역시 기계가 맞춰놓은 확률에 매달려서 이 기계 저 기계를 오가며 붙잡혀있기는 매한가지인 것이다. 매번 그만두겠다는 말을 하지만 결코 회사를 뛰쳐나올 용기가 없는 인물이고, 더 구구절절 구차한 말들을 늘어놓으면서 결국은 누군가를 비난하고, 자기는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친다. 스스로가 아무리 변명을 늘어놓으며 아닌 척 하지만 결국은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시스템 안에 있는 사람이다.

> 함께 둥둥 떠밀리고 있던 바위들이 갑자기 강바닥에 뿌리를 내린 듯 무겁게 주저앉아 버리는 환상 -. 처음 그것을 경험했을 때 나는 얼마나 외롭고 두려웠던가. (이청준, <보너스>, ≪가면의 꿈≫, 54면)

일상의 유지를 통한 삶의 안정성을 얻고자 하는 인간의 욕구는 중력과 같이 작용한다. 벗어나고, 도약하고, 자유롭고 싶어 하다가도, 무엇보다 우선되는 생존의 무게감에 눌리기 마련이다. 그래서 소시민은 중력을 거스르려 해도, 천장 아래서만 떠돌며 부유하다가 언제라도 단단히 땅에 찰싹 내려앉는 것이다. 〈보너스〉의 화자는 "흐물흐물한 사무실 분위기"와 긴장감 없는 사람들의 행동을 비난하며, "긴장감과 뇌수를 씻어내는 듯한 코인의 소리"를 듣고 싶어 한다. 이청준은 작품 〈소매치기, 글쟁이 다시 소매치기〉 1, 2, 3 연작 등 다수의 작품에서 이 긴장감을 잃어버린 인물들을 탓하고 있다. 선택이 아닌 무선택적 적응이 몸에 밴 이들에 대한 혐오라 할 수 있다. 흐물흐물 부유하는 이들이 긴장하는 것은 당위의 강압 앞에서

뿐이다.

〈차나 한잔〉에서 만화가가 그날 치 만화를 들고 신문사에 가자 평소에는 만화가의 얼굴이 만화자체라도 되는 듯 얼굴만 보면 피식되던 사환 아이가 평소와 다르게 살풋 인사를 하며 연민의 빛을 보인다. 호모사케르[33]에게 보내는 눈빛이다. 이렇게 되면 그 희생양은 분노하기보다는 적대감이나 전투력을 상실하고 포기하게 되는 것이다. 공동의 묵인 아래 선택된 그는 동정과 연민을 받을 수는 있지만 구제받을 수는 없는 모두의 염원을 대신해 희생당해야 하는 존재이다. 희생시키기 전에 최고의 예를 다하는 듯한 모습을 만화가 '이선생'이 받게 된다. 그 희생양임을 알게 된 그는 부끄러움을 감수해야 한다. 특정지역 출신이나 편모의 가정환경을 가진 응시자는 뽑지 않는다거나, 이유 없이 자신에게만 초대장을 주지 않은 점, 당연히 주어야 할 보너스를 주지 않고, 오히려 해고할 수도 있다고 위협하는 가증스러움, 정당한 이유 없이 그려간 만화를 신문에 싣지 않고 있다는 사실과 같은 부당한 상황에 처한 '나'들은 그것의 억울함을 토로할 수 없다. 스스로가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음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분명히 말하고, 드러내고, 개선을 요구해야 하는 문제이지만 그것의 발설이 곧 자신의 무능함으로 비쳐질 수밖에 없는 구조 안에 놓인 것이다. 조직의 명령에 대해 저항하거나 아무렇지도 않은 일인 것처럼 행동하려는 일면을 보이는 인물들이 치러야하는 대가는 생계와 생존을 위한 몫의 분배에서 배제되는 것이다. 이를 지켜보는 개인은 몫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모두의 지목으로 선정되는 희생양이 되지 않기 위해 더욱 더 조직의 명령을 거스르지 않고, 충성을 다할 방법을 찾게 된다. 그 과정에서 개인은 불안을 기조로, 스스로 명령에 맞는 규율을 내면화한 주체가 된다. 솔직한 심경을 밝히면 오히려 그의 소외와 배제를 분명하게 하는 결과를 낳을 것을 알기

33) 조르조 아감벤, ≪호모사케르≫, 박진우 옮김, 새물결, 2008.

때문에 위선적인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도 이 말하고자 함, 솔직하고자 함의 욕구는 내면의 한 모퉁이에 자리 잡고 있다.

> 면접 때 욕설이라도 한바탕 내뱉어주어야 속이 풀릴 것 같았다. (이청준, <굴레>, ≪가면의 꿈≫, 23면)

> 어떻게 하든 나보다 먼저 미스 김 면에서, 아니 미스 김이 아니더라도 누구든 나 아닌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소동을 (비록 그것이 아무도 모르는 곳에설망정)일으키게 하고 싶었다. (이청준, <보너스>, ≪가면의 꿈≫, 51면)

발설의 욕망을 감춘 채 불안과 부끄러움을 지닌 내면은 다양한 증상을 보인다. 만화가 신문에 실리지 않는 것이 계속되자 시작된 설사, 해고당한다는 것을 알면서 더 정중하게 인사하는 사람들 앞에서 느껴야 하는 부끄러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별의별 귀심이 그 어둠 속에서 날갯짓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들놀이〉, ≪무진기행≫, 303면)"는 불안감, 혹은 침묵 등의 심리와 행동이 반복된다. 〈굴레〉에서는 심한 요의로, 〈보너스〉에서는 쏟아지는 동전소리를 듣고 싶어 빠찡꼬를 찾는 중독으로 나타난다.

모든 것을 다 드러내 보일 수밖에 없는 존재는 당당해질 수 없으며, 무방비 상태에 놓여있다는 불안감으로 신경증적인 증상들을 보인다. 이런 증상은 일련의 사회구조의 억압을 자아의 해체 위험으로 지각하면서 더욱 확대 재생산되고 나아가 여타 상황에 대한 반응을 조건 짓는 실존적 의식의 토대[34]로 내면화된다. 이 과정에서 김승옥과 이청준의 작품에서는 앞서 말한 증상을 통한 저항을 보여준다.

34) 김영찬, 「불안한 주체와 근대 - 1960년대 소설의 미적 주체 구성에 대하여-」, 『상허학보』 12, 상허학회, 2004, 47~48면.

증상은 이성과 계몽의 힘에 복종하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흠집을 내고, 작은 흉터 하나가 생기길 바라는 해체적 몸짓으로 제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4. '말'의 불확실함에 부유하게 하는 사건

〈차나 한잔〉의 '나'는 "변화 많고 울퉁불퉁하고 먼지가 휘날리고 갈림길이 너무 많고 그러나 표지는 하나도 없는 길"을 헤매고 있다고 말한다. 연구 대상인 네 작품은 모두 이러한 길에 놓인 인물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초점을 맞춰 사건을 이끌어나가고 있다. 고정적이고 불변하는 정보를 담는 문자가 아니라 불확실함과 결국은 알 수 없음을 확인해 가는 과정이 곧 사건의 주요한 흐름이 된다. 김한식은 이청준 소설의 서사는 명확한 원인과 결과를 제시하지 않으며, 과정 자체를 보여주는 데 주력하고 있고, 그로 인해 서사의 흥미 위주가 아니라 고민하는 개인이 부각되는 소설[35]이라고 평한 바 있다.

파놉티콘의 감시 불빛처럼 '명령'은 분명하게 존재하지만 그 명령에 따라 직원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스스로 알아내야 하는 애매하고 불분명함 속에 헤맨다. 개인들을 구조의 틀에서 벗어날 수 없게 하는 것은 단순한 명령 때문이 아니라, 불빛 너머에서 내려지는 그 명령이 우회적이며, 시시각각 다른 것을 요구한다는 점 때문이다. 분명하고, 신성한 명령이 있고, 이에 적대적인 확실한 적이 있었던 시대가 끝난 것이다.

35) 김한식, 「이청준 소설의 서사 전략」, 『이청준과 남도 문학』, 소명출판, 2012, 121~123면 참조.

심하게 정부를 까더니 그예 당했구려?

사실 옛날 자유당 시절에는 그런 사례가 있기도 했었다. 그러나 위정자가 바뀌고 보니 그런 경우를 당하기가 힘들어졌다. 만화가를 건드리면 손해 보는 건 자기들이라는 걸 알아버린 모양이지. 허긴 어떤 선배 만화가의 얘기에 의하면 지금도 그런 경우가 전연 없지 않다는 것이었다. 방법이 바뀌어서 간접적인 압력이 있기도 하다는 것이었다. (김승옥, <차나 한잔>, ≪무진기행≫, 51면)

퇴출되어야 할 적대적인 것도 언제라도 삶의 필요에 의해 가치를 가진 것으로 전도될 수 있는 유동적인 세상인 것이다. 삶이라는 실재의 발전과 파국을 이해하려면 자가 증식하는 자본의 뜻[36]을 파악해야 한다. 냉혹하고, 추상적인 자본의 논리에 사로잡힌 직원들은 사장과 대면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다만 종잡을 수 없는 사장의 뜻을 헤아리기 위한 소문들만 무성해진다. 소문들은 완전 거짓이 될 수도 있고, 진짜가 될 수 있는 하나의 부유하는 상황적 해석이 된다.

소문에 따라 인물들은 절망과 희망 사이를 오가면서 불확실에 불안해 할 수밖에 없다. 〈보너스〉에서는 보너스가 몇 퍼센트가 될 것이라는 정확한 수치와 함께 떠도는 희망적인 소문과 시간의 유예로 인한 절망감이 교차한다. 말의 불확실성은 권력자의 말에서 더 두드러진다. 개별자들을 쉽게 내치지도 않고, 분명하게 길을 제시해주지도 않으면서 애매한 말로 '혹시나'하는 여지를 남기면서 곁에 붙잡아두면서 훈련을 시킨다. 누군가를 감원해야 한다는 불안감을 조장하면서도 '너는 우리와 같이 갈 것이다'는 의도의 말을 흘린다. 채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X지방 출신'에 '편모'인 '나'를 1차 시험에 합격시

36) 슬라보예 지젝, 『폭력이란 무엇인가 - 폭력에 대한 6가지 삐딱한 성찰』, 김희진 이현우 옮김, 난장이, 2011, 40면.

켜 "착각이 들게 한 다음 풀이 죽어 애원하는 눈초리"를 보내게 한다. 〈차나 한잔〉에서는 "오늘치 만화 좀"이라거나 "다음에 한 번 봅시다.", "차나 한잔하자"는 추파 같은 말, 막연하게 다음을 기약하는 하는 듯한 어법으로 '나'를 혼미하게 한다. 그 알 수 없는 말에 '나'는 "지나치게 당황했다가, 지나치게 부끄러워했다가, 기가 죽었다가 노여워했다가" (김승옥, 〈차나 한잔〉, ≪무진기행≫, 232면)하는 것이다.

너라면, 입을 다물고 조금만 더 충성한다면 너를 인정하겠다는 듯 여운을 남기면서 서로를 경계하고 경쟁하는 대상자로 여기게 만들어 사람들을 파편화시킨다. 때문에 입사 시험의 문제점이나, 보너스를 제대로 주지 않는 불합리함, 예고 없이 일을 그만두게 하는 것의 부당함에 대해 즉각적이고, 열성적으로 저항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자본주의가 소외시키는 존재가 되지 않기 위해 각각의 소시민들은 누구보다 자본주의적 구조를 튼실하게 하는 일원이 되어가며 자신들의 일상을 모순으로 몰고 가는 것이다.

이런 불확실함은 그동안 자신들이 알고 있던 익숙한 것들과 가치들을 무너뜨리며, 세상을 낯설고 두려운 것으로 느끼게 한다.

> 그는 이른 아침의 희미한 빛 속에서 엷은 명암을 지닌, 전연 알지 못하는 사람의 얼굴 같은 아내의 얼굴을 시선으로 찬찬히 더듬기 시작했다. 그러자 아무래도 알지 못하는 사람의 얼굴 같았다. …… 그는 문득 조바심이 나고 불안해져서 고개를 들고 아내의 얼굴 바로 위에서 정면으로 아내를 내려다보았다. 틀림없는 자기의 아내였다. (김승옥, <차나 한잔>, ≪무진기행≫, 218면)

잘 알고 있던 아내의 얼굴마저 전연 다르게 보일 수 있음에, 사물과 대상을 전치시키는 명령에 대한 불안감이다. 무엇이 옳은지, 어

떻게 해야 하는지 뚜렷이 자각할 수 없는 가운데 차라리 자의식 없이 우연 속에 떨어지는 명령들에 따르기만 하던 때를 "하긴 그것이 평안했어. 적어도 신경쇠약에 걸릴 염려는 없었거든."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알 수 없는 세상이 된 근대에서 개인들은 회사라는 조직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고 그 입맛에 맞게 행동해야 한다. 변화에 의해 안정적인 체제를 구축할 수 없는 부정형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은 이처럼 소외되고, 배제될 수 있는 불안하고 부동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다.

〈들놀이〉의 맹상진처럼 개인들은 막연하고 불확실함 속에서 붙잡을 분명한 것을 바래본다.

> 그래도 그가 조금도 거짓 없이 웃을 때가 있다면 그것은 자기가 어렸을 때 매일 반복하고 추구하고 그 속에 빠졌을 때야 세상의 모든 사물이 뜻을 가진 걸로 보이던, 공상이 생각날 때였다. (김승옥, <들놀이>, ≪무진기행≫, 296면)

그가 떠올리는 공상이란 어린 시절 예언자가 나타나 자신의 운명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해주고, 그 말의 힘으로 인해 모두가 자신에게 엎드린다는 내용의 것이다. 소문이 아니라 계시를 바라는 것이지만 그것은 공상에 불과한 것이다.

결국 소설의 서사 전개는 인물들이 중력 없이 떠도는 존재들처럼 어느 한 곳에 뿌리를 내릴 수 없도록 한다. 분명하고 명확한 가치가 뚜렷하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알 수 없음'이란 방법으로 힘이 작동하는 구조인 것이다. 인물들에게 사건의 결말은 언제나 유보되고, 그들은 지연된 상태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부유하게 된다.

두 작가는 말하고자 한다. 불확실한 소문 같은 것들에 휘둘리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를 끝내야 한다고. 이 방법은 권력자가 사용하는 말의 해체로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다. 〈보너스〉

의 맹상진이 자신이 쓴 기사에 '장녀'가 '창녀'로 나간 것은 결코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고 증거를 내밀며, 당당하게 말하고 잘못된 사실을 바로잡았던 것처럼 말이다.

> 그는 문화부장을 향하여 처음으로 사무 냄새가 나는 질문을 했다. 그리고 그는 누구와도 항상 사무적인 대화를 하기 싫어했던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었다. 왜 사무적인 대화를 싫어했을까? 줘야 할 것과 요구해야 할 것을 떳떳이 서로 얘기하고 필요하다면 소리를 높여 다투기라도 해야 했을 게 아닌가? 생각이 비약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하고 그는 자신에게 말했다. (김승옥, <차나 한잔>, ≪무진기행≫, 233면)

> 그때 우연히 진짜 '苛斂誅求'의 낙자가 떠올랐다. 그것은 홀연히랄 만큼 진짜 우연이었다. 그러나 그게 지금 새삼스럽게 반가운 것은 아니었다. 다른 세 자를 모조리 틀려 놓고 부질없이 '렴'자에만 매달려 머리를 썩힌 일이 우스워질 뿐이었다. …… 그러나 나는 그 '가렴'의 '가'자를 미련스럽게 믿고 싶어 했는지 모를 일이었다. '렴'자가 제대로 생각날 리 없었다. 근본이 틀린 일이었다. 그건 지금 내가 시험을 치고 있는 일과도 비슷했다. 시험을 치러 나선 데서 이미 틀려 있는 일에 며칠씩 질질 끌려 다니고 있는 것은 '렴'자를 생각하느라 헛되이 머리를 썩힌 것과 다를 바가 없었다. (이청준, <굴레>, ≪가면의 꿈≫, 31면)

불확실한 소문 같은 것들에 휘둘리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를 끝내야 한다. 근본이 틀린 일을 붙잡고 끙끙거릴 일이 아닌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분명한 정착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두 작가는 오히려 그러한 뿌리내림을 더 경계하고 있다. 김승옥의 〈차나 한잔〉의 마지막 장면처럼 성실한 삶을 증거 하는 재봉틀을 돌리고 돌려야 함에도 방귀를 뀔 수 있어야 한다. 그가 배앓이를 고치기

위해 먹은 크로로마이신에 흉터가 있는 것은 그가 세심하게 약사의 손에 난 그 흉터를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멈추지 않는 재봉틀에, 단박에 나을 것이라는 약효에 동반되는 또 다른 요소들을 함께 볼 수 있는 감수성을 요구하는 것이다. 한순미는 이청준 소설이 의심없이 믿어왔던 실재, 실체, 현실에 대한 방법적 회의를 제기하면서 참 / 거짓, 진실 / 소문과 같은 이원 대립적 구조를 해체하려는 탈근대적 사유와 흐름을 같이 한다[37]고 보고 있다. 즉 괴물과 황금성이 정의의 실현이란 이름으로 씌우는 굴레에 대해 치열한 인식과 치밀한 사유 그리고 진지한 전망의 제시[38]는 해체적이라고 할 수 있다. 라깡은 타인의 욕망에서 분리되어 소외를 고착화하는 동일화에 저항하며 소외를 고정시키려는 힘과 의미의 비결정성 사이에서 끊임없이 동요하면서 진정한 욕망의 주체로 다시 태어나라[39]고 했다. 이러한 말의 해체와 흔들림이 곧 김승옥이 보여준 감수성이자, 부르주아적 사회 구도에 대한 문학적 저항 지점[40]이 된다.

60년대 김승옥, 이청준이 창조해낸 인물들은 말을 쟁취하여 부당함에 저항하는, 시원하게 발설하고자 하는 강한 배설의 욕망을 보인다. 그러나 결국 〈굴레〉에서는 화장실의 위치를 물어보지만 시원하게 쏟아내는 장면 대신 주저앉아 버리고, 현기증을 느끼는 것으로 끝나고, 〈보너스〉에서 '나'는 끝내 쏟아지는 동전 소리를 듣지 못한다. 증상들이 점점 강도를 더해가지만 배설은 시원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방식으로 사건이 전개된다. 이런 결론을 지연시키는 사건 전개

37) 한순미, 「불교철학적인 물음에 비추어 본 이청준 소설」, 『이청준과 남도 문학』, 소명출판, 2012, 161면.
38) 김병익, 「이청준, 한스런 삶에서 화해의 문학으로」, 『이청준과 남도 문학』, 소명출판, 2012, 191면.
39) 홍준기, 「자끄 라깡, 프로이트로의 복귀 - 프로이트, 라캉 정신분석학 : 이론과 임상」, 『라깡의 재해석』, 창작과비평사, 2002, 129면.
40) 송은정, 「무진기행의 공간성과 근대 주체의 감수성」, 『현대소설연구』 62, 현대소설학회, 2016, 210쪽.

는 인과적인 논리로 하나의 의미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과 관계의 고리에 대해 회의하고 해체해보려는 작가적 비판을 담기에 적당한 전개 방식이 된다.

5. 나오며

지금까지 김승옥의 〈차나 한잔〉, 〈들놀이〉, 이청준의 〈굴레〉와 〈보너스〉 네 작품을 배경과 인물, 사건 전개 양상으로 나누어 주체의 형성 과정과 내면의 형상화를 추적하고, 작가가 포착한 구조적 폭력에 대한 철학적 사유와 그들이 보여주려 한 문학의 저항적 지점을 찾아보았다.

커다란 회색빛 괴물 같은 신문사와 잡지사를 중심으로 한 회사라는 배경은 하나의 원형 감옥과 같이 시간과 사칙의 규율로 사원들을 감시하는 구조이다. 이 조직에서는 ‘봉투’, ‘시험지’,라는 확고한 문자의 명령과 감시가 존재한다. 물리적 억압이나 폭력이 아니라 ‘들놀이’를 가자고 환심을 사고, “차나 한잔”과 같은 추파와 ‘보너스’를 미끼로 던지며 소시민들을 유혹하고, 결국 ‘굴레’에 스스로를 적응시키도록 하는 구도이다. 그리고 그들의 말은 억압적 힘을 띄지만 그 뜻은 우회적이고, 불분명함으로 인해 그 말 앞에 선 주체는 불안해하며 여러 신경증적인 증상을 보이게 된다.

이 구조적 폭력은 김승옥, 이청준 작가의 이전 작품에서 보여주었던 개별적 자기 세계와 실존에 대한 고민을 보이던 개인의 내면이 변화하기 시작한 분기점과 같은 작품이 될 수 있는 요소라 할 수 있다. ‘무선택적 적응’ 의 강압이 이뤄지는 구조적 폭력 앞에서 앉지도 서지도 못한 채 엉거주춤한 상태로 “귀찮다 귀찮다” 라고밖에 할 수 없는 개인은 결국은 굴레를 쓴다. 굴레를 쓰라는 사회 체제에 복수

하고 싶지만, 일상의 영위를 위한 밥그릇을 미끼로 둔 덫은 한편으로는 유혹의 대상으로 다가오기도 한다. 그러나 김승옥과 이청준은 억압과 자유의 변증법 속에서 저항적 지점으로서 감수성을 발휘해 삶의 조건들을 반성적으로 사유하고 있다. 근대주체는 각각의 개별자와 횡단하는 주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과관계에 따르는 종속적인 주체로 굳어질 수 있는 위기에 놓였음을 드러내 보이면서 이에 대해 해체적으로 저항함으로 문학적 소임을 다 하고 있다.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김승옥, ≪무진기행≫, 나남출판, 2001.

김승옥, ≪무진기행≫, 문학동네, 1995.

이청준, ≪가면의 꿈≫, 열림원, 2002.

이청준, ≪씌어지지 않은 자서전≫, 열림원, 2001,

2. 단행본

김상환, 홍준기 엮음, 『라깡의 재탄생』, 창작과비평사, 2002.

최현주 엮음, 『이청준과 남도 문학』, 소명출판, 2012.

슬라보예 지젝, 『폭력이란 무엇인가 - 폭력에 대한 6가지 삐딱한 성찰』, 김희진 이현우 옮김, 난장이, 2011.

조르조 아감벤, 『호모 사케르』, 박진우 옮김, 새물결, 2008.

테리 이글턴, 『이론이후』, 이재원 옮김, 도서출판길, 2010.

3. 논문

강운석, 「60년대 소설 연구(2) - 이청준론」, 『숭실어문』 15, 2012, 471~485면.

권보드래, 「4월의 문학혁명, 근대화론과의 대결」, 『한국문학연구』 39집,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10, 269~312면.

김건우, 「4·19세대 작가들의 초기 소설에 나타나는 ‘낙오자’ 모티프의 의미」, 『한국근대문학연구』 16, 한국근대문학회, 2007, 167~193면.

김건우, 「1964년의 담론지형 : 반공주의, 민족주의, 민주주의, 자유주의, 성장주의」, 『대중서사연구』 제22호, 2009, 71~90면.

김영찬, 「불안한 주체와 근대 - 1960년대 소설의 미적 주체 구성에 대하여-」, 『상허학보』 12, 상허학회, 2004, 39~65면.

김영찬, 「4.19와 1960년대 문학의 문화정치」, 『한국근대문학연구』 15, 한국근대문학회, 2007, 137~163면.

김정남, 「김승옥 소설의 시. 공간 구조 연구」, 『한국언어문화 21』, 한국언어문화학회, 2001, 137~158면.

김정남, 「김승옥 소설의 근대성 담론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김명석, 「김승옥 소설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김영택, 「김승옥론 - 1960년대식 '자기 세계'의 탐색과 상실의 지형도」, 『한국문예비평론』 8집. 한국문예비평학회, 2001, 121~138면.

송은정, 「김승옥 소설에 드러난 동일화에 맞선 해체적 저항」, 『현대문예비평』 제51집,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16, 245~266면.

송은정, 「무진기행의 공간성과 근대 주체의 감수성」, 『현대소설연구』 62, 현대소설학회, 2016, 187~216면.

우찬제, 「탈난 개인의 탈주」, ≪가면의 꿈≫, 이청준문학전집3, 열림원, 2002, 369~384면.

유창민, 「1960년대 잡지에 나타난 대학생 표상- 사상계 의 대학생 담론을 중심으로-」, 『겨레어문학』 제47집, 겨레어문학회, 2011, 143~171면.

신형기, 「분열된 만보객(漫步客):김승옥의 1960년대 소설 읽기」, 『상허학보』 11호, 상허학회, 2003, 199~225면.

양윤모, 「1960년대 근대화의 진행과 소외의 양상」, 『글로벌사회복지연구』 제2권 제2호, 2012, 95~112면.

천정환, 「처세, 교양, 실존 - 1960년대의 '자기계발'과 문학문화」, 『 민족문학사 연구』 40호, 2009.

<Abstract>

Deconstructive Resistance Against the System Demanding ‘Adaption to No-choice’ －Focus on Kim Seung-Ok’s ‘Chana hanjan’, ‘Deulnori’ and LEE Cheong-Jun’s ‘Gulle’, ‘Bonus’－

Song, Eun-Jeong

After the disruptive failure of 4.19 revolution in mid-1960’s and 5.16 military coup, the young generation of Korea could not fully reject the slogans presented by military regime which emphasized economic growth and nationalism. When people knew the substance of the evil and the source of the oppression, ‘the individuals’ tried to find ‘their own world’. After the compressed industrialization and improvement of quality of live, ‘the individuals‘ were demanded to waive their freedom and obey the disciplines.

Kim Seung-Ok’s ‘Chana hanjan’, ‘Deulnori’ and LEE Cheong-Jun’s ‘Gulle’, ‘Bonus’ are the novels captured the ‘the individuals’ driven to a singularity between ‘deliberation of one’s world and existence’ and ‘adaption to no-choice’. The military regime authorized by an election made a choice in ‘precise and perfect’ way in lieu of the people and the choice was that economic growth and improvement of quality of life was the highest good. As a result, the people was demanded to follow the choice and placed on ‘adaption to

no-choice'.

The propose of the shoulds and adaption demand was disguised as a cultural achievement of life and the novels seized the mechanism of the shoulds of the time in the frame such as a newspaper publishing company and a magazine house. As closely described in Lee Chung-Jun's novel, the magazine in the novel changed their editorial keynotes after 5.16 military coup which used be focused on expression of values for a choice.

The scenery of gigantic grey monstrous newspaper publishing company and magazine house provided the structure of a circular prison surveilling employees with time and discipline of arithmetic. In this system, there were steadfast orders and surveillance of letters such as 'the envelop' and 'the test paper'. Instead of physical oppression or violence, the system lured the petty bourgeois with 'Deulnori – Field Picnic', 'a cup of tea – Chana hanjan' and 'bonus', and finally made them to adapt themselves into'Gulle – the bridle'. So it is a synecdoche of violent structure disguised as a cultural manner which identifying the individuals in an indirect and roundabout way.

'The individuals' recognized the very existence of the oppressive orders but the orders were disguised as 'an invitation' or 'a rumor' so they could not catch the hidden intention. This situation made 'the individuals' anxious because they could not make their choice for the lack of context awareness. The characters's emotion, inside and analytical aptitude suspending decision making caused the symptom of deconstruction of words.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reveal that the symptom hold the deconstructive resistance against the disciplines of the violent uniformity.

Key words: Kim Seuongok, LEE Cheongjun, 1960th, adaption to

no-choice, Subjects floating, resistance of dismantlement

투 고 일 : 2017년 5월 25일 심 사 일 : 2017년 5월 25일-6월 8일
게재확정일 : 2017년 6월 10일 수정마감일 : 2017년 6월 19일